

JBLI 전북 노동·경제 동향 브리핑

JBLI Jeonbuk Labor Economic Trends Briefing

김 연 탁 (전북노동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JBLI LETB 2021.4. | No.1

JBLI 전북 노동·경제 동향 브리핑

발행일 | 2021.4.2.

발행인 | 염경석

발행처 |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57 3층

전 화 | 063.256.5003

이메일 | kctu.jbli@gmail.com

ISSN | 2765 - 5490



목차

1. 전북지역 고용·노동현황(2월)	4
2. 고용 분석	5
1) 요약	5
2) 분류별 취업자 동향	6
3.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 현황	8
4. 산업 경기 현황	10
1) 제조업	10
2) 비제조업	13
3) 수출입통계	18
5. 가계동향	20
1) 소비자심리지수(CCSI)	20
2) 소비자동향지수(CSI)	20
6. 분석 미 시사점	21
1) 보고서 요약	21
2) 이후의 대안	22

1. 전북지역 고용·노동현황(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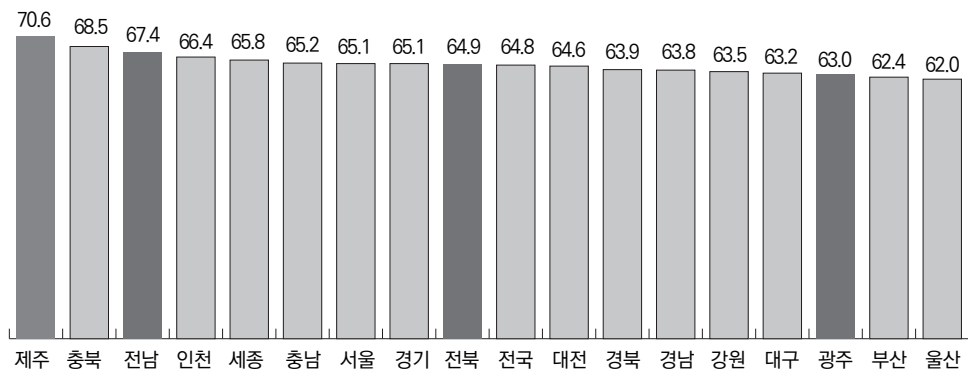
〈 취업자 현황 〉

(단위 : 천명)

		2월 현황/전년동월대비 증감				1월 현황/전월대비 증감			
		전 국		전 북		전 국		전 북	
전 체		26,365	▼473	928	▲24	25,818	▲547	893	▲35
성별	남성	15,149	▼186	534	▲12	14,939	▲210	521	▲13
	여성	11,215	▼287	394	▲12	10,879	▲336	371	▲23
연령별	15~29세	3,715	▼142	101	▲8	3,642	▲73	98	▼3
	30대	5,263	▼238	146	▼4	5,245	▲18	147	▼1
	40대	6,260	▼166	204	▼3	6,244	▲16	206	▼2
	50대	6,219	▼139	217	▼4	6,204	▲15	219	▼2
	60세 이상	4,908	▲212	261	▲26	4,483	▲425	223	▲38
산업별	농림어업	1,226	▲33	160	▲9	1,158	▲68	153	▲7
	제조업	4,418	▼27	122	▼1	4,401	▲17	120	▲2
	건설업	1,979	▲28	76	▲1	1,955	▲24	77	▼1
	도소매음식숙박업	5,422	▼426	156	▲1	5,356	▲66	159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0,065	▼102	327	▲7	9,694	▲371	298	▲29
	전기운수통신금융업	3,240	▲21	87	▲7	3,242	▼2	84	▲3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5,372	▼111	255	▼2	5,335	▲37	255	-
	무급가족종사자	915	▼47	63	▲8	866	▲49	59	▲4
	상용근로자	14,678	▲82	427	▲23	14,622	▲56	424	▲3
	임시근로자	4,190	▼317	146	▲6	3,860	▲330	112	▲34
	일용근로자	1,210	▼80	39	▼12	1,135	▲75	43	▼4

〈 시도별 15~64세 고용률 〉

(2월 기준, 높은순, %)



2. 고용 분석

1) 요약

- 2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는 1,55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 감소하고, 전월대비 1천명 증가함. 2017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임. 경제활동인구는 95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천명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18천명 증가함, 비경제활동인구는 60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명 감소, 전월대비 18천명 감소함.
- 2월 기준 전북지역의 취업자는 92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천명, 전월대비 25천명 증가하였음. 실업자는 2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 전월대비 18천명 감소함. 고용률¹⁾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1.7%p, 전월대비 2.5%p 상승하였음. 실업률²⁾은 2.3%로 전년동월대비 0.6%p, 전월대비 2.0%p 낮아짐.
- 2월 기준 전북지역의 15~64세 고용률(OECD 기준)은 64.9%로 전국평균(64.8%)을 상회하며, 전년동월대비 1.7%p, 전월대비 0.2%p 상승함. 하지만, 이 수치는 농업과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전북지역의 열악한 고용현황을 왜곡하고 있음.
- 2020년 4/4분기 기준 전북지역의 청년고용률(15~29세)은 34.3%로 전년동분기대비 1.5%p 상승했고, 전분기 대비 2.0%p 상승함. 이는 전국평균 42.0%(전년동분기 대비 2.1%p 하락)는 물론, 전남(35.7%, 5.8%p 하락), 광주(38.1%, 3.0%p 하락)에 비해서도 낮은 상태임.
- 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전북지역 고용현황은 성별로는 남, 여 모두 증가,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와 60세 이상은 증가, 30~59세 연령에서 감소, 산업별로는 제조업을 제외하고 전 업종에서 증가함.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감소, 무급가족종사자 증가, 상용·임시 노동자가 증가한 데 반해, 일용노동자가 감소하였음.
- 2월 기준, 전월대비 전북지역 고용현황은 성별로는 남,여 취업자 수 증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에서 감소,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농림어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감소함. 종사상

1)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인구×100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지위에서는 자영업자는 보합, 무급가족종사자 증가, 상용노동자가 소폭 증가, 임시노동자 대폭 증가, 일용노동자는 감소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또는 전년대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용이 증가한 것은 60세 이상, 농림어업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수가 증가한 데 원인이 있음. 이는 농림어업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노인일자리사업의 결과로 보임.
- 전북지역 고용현황이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통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농도로서의 특징과 산업의 후진성과 열악한 고용현실(중소영세 및 자영업 취업자 비율 높음), 작은 도세(인구 및 경제지분율 3~3.5% 수준)로 인해 감춰진 현상일 뿐, 위기의 질은 훨씬 심각함.

2) 분류별 취업자 동향

(1) 성별 동향

- 전년동월 대비,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는 473천명 감소함. 남성(186천명)과 여성(287천명) 모두 감소함. 전북지역은 24천명 증가함, 남성은 12천명, 여성은 12천명 각각 증가함. 전월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547천명 증가함. 남성은 210천명, 여성은 336천명 증가함. 전북지역은 35천명(남성 13천명, 여성 23천명) 증가함.
- 전북지역 성별 고용율³⁾은 전년동월대비 남성은 69.9%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함, 여성은 49.8%로 1.7%p 상승했음. 전월과 비교하면, 남성은 1.7%p, 여성은 2.9%p 각각 상승함.

(2) 연령별 동향

- 전년동월대비 전국적으로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지역의 경우에도 29세 이하와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였음.
- 전월 대비 전국 통계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였음. 전북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였음. 60세 이상 노인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농업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당해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시 영향으로 보임.(산

3) 15세 이상 성별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

업별에서도 농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대폭 증가하였음)

(3) 산업별 동향

- 전년동월대비 전국적으로는 농림어업,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수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27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426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02천명)이 감소하였음.
- 전년 동월대비 전북지역은 제조업(-1천명)만 감소하였을 뿐, 전 사업에서 소폭 증가하였음
- 전월대비 전국 현황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을 제외하고, 전 사업의 취업자수가 증가함. 특히, 농림어업(+68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66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71천명)이 대폭 증가함. 전북지역의 경우 건설업이 소폭 감소하였고, 전 산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9천명)과 농림어업(+7천명)이 많이 증가하였음.

(4) 종사상 지위별 동향

- 전년동월 대비 전국적으로 자영업자가 111천명, 무급가족종사자가 47천명 감소하였음. 전북지역은 자영업자가 2천명 감소한 데 반해, 무급가족종사자는 8천명 증가하였음.
- 전월대비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는 37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9천명 각각 증가함. 전북지역의 경우는 자영업자 포함, 무급가족종사자 4천명 증가하였음. 이는 전국적으로 퇴직 등 취업에서 밀려난 실업자들의 신규창업 또는 귀농이 증가한 결과로 보임. 전국적인 추세가 전북지역은 1월 통계에서 이미 나타났음.
- 2021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전체 취업자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0.38%로 전월 대비 0.28%p 감소함, 무급가족종사자는 3.47%로 0.12%p 증가함. 전북지역은 자영업자 27.48%(전월대비 1.08%p 감소), 무급가족종사자는 6.79%(전월대비 0.18%p 증가)를 차지하고 있음. 전북지역이 전국대비 자영업종사자 비율이 7.10%p, 무급가족종사자는 3.32%p 더 높음. 전북지역의 자영업 종사자(무급포함) 비율은 34.27%를 차지하고 있음. 이 수치는 미국(15%)에 비해 약 2~3배, 유럽(7~10%)에 비해 3.5~5배가 많은 수치임.

- 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또는 퇴출)되고,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창업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영업 종사자가 많다는 것은 전북지역의 고용구조가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함. 또한, 자영업의 영세성과 열악한 수입규모(평균, 월 100만원수준)를 감안할 때, 경제적 약자로서의 사회적 지원과 구조적인 해결이 요구됨.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 고용정책의 확대를 통해 임금노동자로 수용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의 지속으로 인해 적절한 생계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사회적 지원이 요구됨.
- 전년동월대비 임금노동자 현황은 전국적으로 상용노동자가 82천명이 증가하였고, 임시노동자(-317천명)와 일용노동자(-80천명)가 감소하는 등 임금노동자가 대폭 감소하였음. 전북지역의 경우는 상용 23천명, 임시 6천명 증가한 반면, 일용직 노동자가 12천명 감소하였음. 전월과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상용 56천명, 임시 330천명, 일용 75천명이 각각 증가하였음. 지역은 상용 3천명, 임시 34천명 증가한데 반해, 일용노동자는 4천명 감소하였음.

3.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 현황 ⁴⁾

(단위 : 천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019	2020
전국	전체	18,195	18,743	19,230	19,546	19,806	20,083	20,440	20,332
	상용	11,713	12,156	12,588	12,974	13,334	13,772	14,216	14,521
		64.3	64.8	65.3	66.4	67.3	68.6	69.5	71.4
	임시	4,892	5,032	5,086	5,104	4,973	4,851	4,795	4,483
		26.9	26.8	26.4	26.1	25.1	24.2	23.5	22.1
	일용	1,590	1,555	1,556	1,469	1,499	1,460	1,429	1,328
		9.1	8.4	8.3	7.5	7.6	7.2	7.0	6.5
	전체	565	571	576	575	577	605	609	603
전북	상용	347	350	346	366	368	386	400	412
		61.4	61.3	60.0	63.6	63.8	63.8	65.7	68.3
	임시	150	156	162	154	157	155	149	141
		26.5	27.3	28.1	26.8	27.2	25.6	24.5	23.4
	일용	68	65	67	54	52	64	63	50
		12.1	11.4	11.9	9.6	9.0	10.6	9.8	8.3
	전체	565	571	576	575	577	605	609	603
	상용	347	350	346	366	368	386	400	412
	임시	150	156	162	154	157	155	149	141
	일용	68	65	67	54	52	64	63	50

4) 임시직과 일용직에 대해 사전적으로 정리하면, '임시직'은 일정기간동안 고용을 약정하는 직종을 뜻하며, '일용직'은 하루에 책정된 일정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직종임.

- 전국 추계 2020년 임금노동자 규모는 2019년 대비 108천명 감소하였음. 상용노동자는 305천명 증가하였으나, 임시노동자가 312천명, 일용노동자가 108천명 감소하였음.
- 상용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임시노동자는 2016년 5,104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추세임. 일용노동자 역시 2017년 이후 감소추세임. 임시노동자가 감소 추세라고는 하나, 아직도 상시업무에 임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청년노동자들의 신규 채용시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2년 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계약해지하는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함.
- 지역추계 2020년 임금노동자 규모는 2019년 대비 6천명 감소하였음. 상용노동자는 12천명 증가한 반면, 임시직 노동자는 8천명, 일용직 노동자는 13천명 감소하였음.

(단위: 천명)

구 분		2019	2020												2021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전체	20,690	20,376	20,393	20,056	19,919	20,244	20,411	20,470	20,446	20,376	20,441	20,678	20,174	19,617	20,078
	상용	14,575	14,586	14,596	14,561	14,401	14,463	14,510	14,528	14,570	14,486	14,448	14,528	14,580	14,622	14,678
		70.4	71.6	71.6	72.6	72.3	71.4	71.1	71.0	71.2	71.1	70.7	70.3	72.3	74.5	73.1
	임시	4,706	4,423	4,507	4,284	4,288	4,453	4,506	4,523	4,539	4,553	4,624	4,738	4,355	3,860	4,190
		22.8	21.7	22.1	21.4	21.5	22.0	22.1	22.1	22.2	22.3	22.6	22.9	21.6	19.7	20.9
	일용	1,409	1,367	1,290	1,211	1,230	1,328	1,395	1,419	1,337	1,337	1,369	1,412	1,239	1,135	1,210
6.8		6.7	6.3	6.0	6.2	6.6	6.8	6.9	6.6	6.8	6.7	6.8	6.1	5.8	6.0	
전북	전체	612	600	593	582	585	604	610	611	610	610	608	629	600	579	612
	상용	412	408	403	403	406	411	416	412	412	413	415	421	423	424	427
		67.3	68.0	67.9	69.2	69.4	68.0	68.2	67.4	67.5	67.7	68.3	66.9	70.5	73.2	69.8
	임시	142	137	139	132	130	142	141	144	146	146	145	158	134	112	146
		23.2	22.8	23.4	22.7	22.2	23.5	23.1	23.6	23.9	23.9	23.8	25.1	22.3	19.3	23.9
	일용	58	55	51	47	49	51	53	55	52	51	48	50	43	43	39
9.5		9.2	8.7	8.1	8.4	8.5	8.7	9.0	8.5	8.4	7.9	7.9	7.2	7.5	6.3	

- 전북지역 상용노동자비중은 전국평균에 비해 1.3-5.3%p 낮음.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3.3%p 낮음.
- 임시노동자가 2019년 9월에 처음으로 전국수준보다 떨어졌으나, 10월부터 다시 전국 평균을 넘어섰으며,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다가 12월 들어 (임시직노동자의 감소로 인해) 격차가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2021년 1월 들어 전국수준보다 떨어졌으나, 2월 들어 다시 전국수준을 상회함. 이는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한 9~10개월 쉼수계약의 결과

로 보임

- 일용노동자 비중을 보면, 2021년 2월 기준 전국평균에 비해 0.3%p 더 높음.
- 전반적으로 전북지역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정규직비율이 낮고, 임시직과 일용직형태가 높음. 이는 고용이 불안정하며,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도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냄.
- 아래 <보표1>의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현황에서 보듯이 전반적인 고용지수가 악화되었음. 전월에 비해 35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는데, 36시간 미만 노동자가 20천명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노동자는 13천명 증가하였음. 또한, 일시휴직자도 2천명이 증가하였음. 주당평균 취업시간은 1월에 비해 0.4시간이 감소하였음. 근로조건 역시 열악해졌음을 유추할 수 있음.

<보표1> 전북지역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시간, %)

구 분	2019		2020												2021		전월 대비
	11	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률
전 체	942	927	907	904	907	913	931	944	946	943	951	956	966	917	893	928	35
36시간 미만	209	249	253	240	217	300	213	210	240	249	223	217	257	252	255	275	20
36시간 이상	727	670	633	627	638	571	699	719	694	679	715	726	698	652	625	638	13
일시 휴직	6	8	21	38	52	42	19	15	13	14	13	14	11	13	13	15	2
주당평균 취업시간	40.0	38.5	37.5	36.9	37.3	36.9	39.1	39.7	38.8	38.5	39.1	39.7	38.5	37.6	37.2	36.8	-0.4

4. 산업 경기 현황

1) 제조업

(1)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3월)

- 2021년 3월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 BSP⁵⁾는 76으로 전월대비 4p 상승. 4월 업황전망 BSI도 79로 전월 대비 1p 상승, 전국의 경우 3월 실적(89)은 7p 상승, 4월 전망(91)은 6p 상승.

5)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업가의 경기에 대한 판단, 전망등이 생산, 매출, 투자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지수로서 0~200의 값을 가지며,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보다 많다는 의미임.

	장기 평균 ¹⁾	2019		2020												2021				전월 대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업황 ²⁾	74 (79)	64 (63)	62 (58)	63 (60)	57 (67)	58 (62)	51 (60)	52 (47)	45 (52)	43 (47)	51 (43)	57 (54)	63 (59)	69 (67)	66 (70)	67 (66)	72 (67)	76 (78)	(79)	+4 (+1)
<전국>	78 (81)	74 (72)	74 (71)	76 (73)	65 (77)	56 (69)	52 (54)	49 (90)	51 (49)	59 (51)	66 (61)	68 (68)	79 (68)	85 (76)	82 (81)	85 (77)	82 (81)	89 (85)	(91)	+7 (+6)

주 : 1) 2003.1월 ~ 2020.12월까지 평균치이며, 매년 수정됨

2) BSI = 「좋은」응답업체 구성비(%) - 「나쁜」응답업체 구성비(%) + 100

3) () 내는 전망 BSI

- 매출 BSI: 3월중 실적은 95로 전월대비 8p 상승, 4월 전망(103)은 전월대비 12p 상승.
- 채산성 BSI: 3월중 실적은 78로 전월대비 1p 하락, 4월 전망(80)도 전월대비 3p 하락.
- 자금사정 BSI: 3월중 실적은 74로 전월대비 1p 하락, 4월 전망(78)은 전월과 동일.
- 3월 중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28.6%), 불확실한 경제상황(20.9%), 원자재가격 상승(15.0%)순으로 나타남. 전월과 비교시 인력난, 인건비 상승(8.3%→6.2%), 수출부진(7.9%→5.9%), 내수부진(29.8%→28.6%)등의 응답 비중은 하락, 경쟁심화(2.4%→4.3%), 원자재가격 상승(13.7%→15.0%)등의 응답 비중은 상승.

	구 분	2019		2020												21				전월 대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11	12	1	2	3	4	
전 년 동 향 비 교	매 출 ¹⁾	75 (72)	76 (74)	69 (73)	69 (76)	70 (74)	63 (73)	56 (58)	53 (59)	51 (53)	56 (52)	65 (59)	69 (71)	72 (71)	78 (77)	81 (74)	87 (83)	95 (91)	(103)	+8 (+12)
	생 산 ¹⁾	78 (80)	77 (80)	76 (79)	73 (83)	74 (81)	66 (77)	62 (64)	59 (64)	55 (59)	64 (60)	72 (68)	77 (74)	75 (78)	84 (77)	82 (83)	85 (83)	99 (96)	(102)	+14 (+6)
	신규수주 ¹⁾	77 (73)	76 (80)	76 (72)	66 (81)	72 (73)	63 (75)	58 (60)	58 (61)	57 (57)	61 (58)	70 (68)	76 (71)	73 (78)	82 (75)	84 (81)	82 (87)	95 (91)	(101)	+13 (+10)
	가동률 ³⁾	73 (75)	74 (74)	72 (72)	75 (78)	71 (79)	65 (73)	60 (62)	56 (62)	60 (55)	64 (62)	73 (68)	74 (76)	80 (77)	85 (82)	84 (84)	83 (85)	98 (93)	(103)	+15 (+10)
전 월 비 교	채산성 ⁵⁾	84 (81)	81 (86)	80 (79)	74 (82)	72 (76)	69 (71)	72 (65)	71 (70)	72 (71)	77 (71)	78 (80)	75 (80)	83 (78)	81 (83)	81 (82)	79 (82)	78 (83)	(80)	(-1) (-3)
	원자재 구입가격 ³⁾	106 (110)	110 (107)	112 (109)	117 (113)	113 (114)	105 (112)	103 (102)	105 (106)	111 (104)	115 (108)	117 (113)	115 (116)	117 (114)	121 (119)	134 (124)	140 (132)	148 (136)	(142)	+8 (+6)
	제품판매 가격 ³⁾	88 (89)	88 (89)	90 (86)	90 (91)	87 (88)	83 (84)	79 (81)	82 (80)	89 (80)	90 (83)	94 (91)	93 (95)	100 (95)	98 (99)	101 (100)	101 (102)	108 (101)	(108)	+7 (+7)
	자금사정 ⁵⁾	75 (77)	79 (73)	73 (75)	70 (76)	64 (70)	62 (65)	65 (60)	63 (64)	69 (60)	65 (67)	70 (68)	71 (70)	75 (73)	79 (77)	77 (75)	75 (79)	74 (78)	(78)	-1 (-)

구 분	2019		2020												21				전월 대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11	12	1	2	3	4	
수준 판단	제품재고 수준 ²⁾	107 (111)	110 (107)	110 (105)	112 (110)	113 (113)	107 (113)	107 (112)	109 (111)	113 (112)	108 (113)	102 (109)	108 (102)	105 (106)	99 (106)	103 (100)	99 (101)	100 (98)	+1 (+1)
	생산설비 수준 ²⁾	108 (107)	107 (108)	108 (108)	109 (108)	109 (108)	113 (109)	110 (115)	116 (111)	116 (114)	110 (114)	107 (109)	107 (108)	106 (107)	106 (105)	107 (107)	103 (107)	104 (105)	+1 (-1)
	설비투자 실행 ⁴⁾	91 (92)	87 (92)	87 (87)	92 (88)	86 (94)	87 (85)	83 (84)	86 (87)	86 (85)	89 (87)	89 (89)	92 (92)	91 (92)	90 (92)	90 (91)	95 (91)	95 (95)	- (+1)
	인력사정 ²⁾	94 (96)	94 (97)	95 (97)	101 (100)	101 (99)	100 (106)	100 (105)	108 (102)	107 (108)	101 (108)	100 (98)	98 (103)	98 (98)	94 (98)	99 (97)	94 (102)	89 (94)	-5 (-1)

주 : 1) 「확대」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

2) 「과잉」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응답업체 구성비(%) + 100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3) 「상승」응답업체 구성비(%) - 「하락」응답업체 구성비(%) + 100

4) 「계획대비 수정증액」응답업체 구성비(%) - 「계획대비 수정감액」응답업체 구성비(%) + 100

5) 「호전」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

6) () 내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2) 광공업⁶⁾ 생산동향(2월)

- 2월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5%, 전월대비 7.8% 각각 증가함(출하는 전년 동월대비 2.4%, 전월대비 5.1% 각각 증가. 재고는 전년 동월대비 19.7%, 전월대비 1.8% 각각 증가)
- 2월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은 화학제품, 금속가공, 식료품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부품 등이 증가함.

(2015=100, %/p: 추정치)

구 분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p	1/4	2/4	3/4	4/4p
지수	원계열	97.1	91.2	90.9	92.8	87.3	92.5	86.0	88.0	83.1	83.0	88.6
	계절조정계열	-	-	91.4	90.6	91.1	89.7	-	87.7	82.6	84.6	87.1
증감률	전년동월(기)비	-2.5	-6.1	-7.4	-6.4	-5.5	-5.8	-5.7	-3.2	-10.5	-4.9	-4.7
	전월(기)비	-	-	-4.3	0.0	0.1	-1.5	-	-2.2	-5.8	2.4	1.4

6) 산업분류에 따르면 대부분류로 광공업이고 중분류로 하면, 광업(B)과 제조업(C)로 나뉜다. 실질적으로 광업에 의한 생산이 거의 없으므로, 제조업으로 봐도 무방하다.

구 분		2019		2020												2021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11	12	1p	2p
지수	원계열	92.3	91.0	87.9	81.8	94.2	88.5	79.5	81.3	84.0	74.1	90.8	86.2	87.7	91.1	90.8	83.3
	계절조정계열	89.7	89.2	91.1	82.6	89.3	90.3	77.5	80.0	82.5	80.0	91.2	88.2	86.5	87.0	87.2	94.0
증감률	전년동월(기)비	-5.0	-5.4	-8.8	1.9	-1.8	-6.8	-16.1	-6.7	-9.8	-11.3	6.4	-8.5	-5.5	-0.8	2.8	1.5
	전월(기)비	-0.6	-0.6	2.1	-9.3	8.1	1.1	-14.2	3.2	3.1	-3.0	14.0	-3.3	-1.6	0.6	0.2	7.8

● 전년동월대비 주요 업종별 증감내역

자 동 차	39.8%	소형트럭, 대형트럭, 자동차부품
기 계 장 비	21.1%	농업용트랙터, 금형, 플라스틱성형기
전 자 부 품	17.8%	다이오드, LED, 동박적층판
화 학 제 품	-9.9%	폴리실리콘, 도료, TDI(폴리우레탄의 원료)
금 속 가 공	-24.7%	용접봉, 육상금속구조물, 건축용금속공작물
식 료 품	-3.7%	동물용 사료, 당류, 햄 및 소시지

2) 비제조업

(1) 일반현황

- 2021년 3월 전북지역 비제조업 업황 BSI는 60으로 전월 대비 1p 상승, 4월 업황전망 BSI는 59로 전월대비 7p 하락. 전국의 경우 3월 실적(77) 및 4월 전망(78)은 각각 5p 상승.
- 3월 중 전북지역 비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17.5%), 인력난·인건비 상승(16.6%), 내수부진(16.5%), 경쟁심화(13.3%)순으로 나타남.

		2019		2020												2021				전월 대비
	장기 평균 ¹⁾	11	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11	12	1월	2월	3월	4월	
업황 ²⁾	65 (70)	67 (64)	65 (64)	66 (62)	52 (67)	50 (57)	56 (52)	57 (55)	54 (58)	59 (54)	54 (56)	56 (56)	56 (58)	60 (56)	57 (59)	56 (54)	59 (59)	60 (66)	(59)	+1 (-7)
전국	74 (77)	75 (72)	78 (74)	73 (75)	64 (74)	53 (68)	50 (52)	56 (50)	60 (56)	65 (59)	66 (63)	62 (69)	69 (62)	73 (69)	68 (73)	70 (64)	72 (70)	77 (73)	(78)	+5 (+5)

주 : 1) 2003.1월 ~ 2020.12월까지 평균치이며, 매년 수정됨

2) BSI = 「좋은」응답업체 구성비(%) - 「나쁨」응답업체 구성비(%) + 100

3) () 내는 전망 BSI

- 매출 BSI: 3월중 실적은 64로 전월대비 3p 상승, 4월 전망(67)은 전월 대비 1p 상승.
- 재산성 BSI: 3월중 실적은 71로 전월 대비 2p 상승, 4월 전망(75)도 전월 대비 2p 상승.
- 자금사정 BSI: 3월중 실적은 72로 전월보다 4p 상승, 4월 전망(71)도 전월대비 2p 상승.

	2019		2020												2021				전월 대비
월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매출 ¹⁾	68 (71)	68 (71)	70 (70)	56 (74)	51 (64)	56 (56)	56 (57)	53 (55)	56 (53)	53 (57)	58 (55)	56 (57)	62 (56)	61 (60)	57 (58)	61 (60)	64 (66)	(67)	+3 (+1)
재산성 ²⁾	76 (74)	76 (74)	77 (76)	66 (79)	56 (70)	61 (62)	70 (62)	65 (67)	66 (64)	59 (64)	63 (63)	63 (63)	72 (62)	66 (69)	63 (60)	69 (65)	71 (73)	(75)	+2 (+2)
자금사정 ²⁾	76 (73)	73 (75)	76 (72)	64 (78)	55 (66)	55 (59)	65 (57)	61 (61)	66 (58)	57 (61)	61 (59)	65 (59)	69 (63)	65 (68)	64 (60)	68 (65)	72 (69)	(71)	+4 (+2)
인력사정 ³⁾	78 (88)	82 (79)	82 (82)	81 (85)	81 (82)	89 (84)	84 (88)	83 (85)	83 (83)	81 (82)	84 (82)	84 (82)	85 (86)	87 (85)	81 (84)	82 (81)	78 (83)	(79)	-4 (-4)

주: 1) 「확대」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전년동월비)

2) 「호전」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전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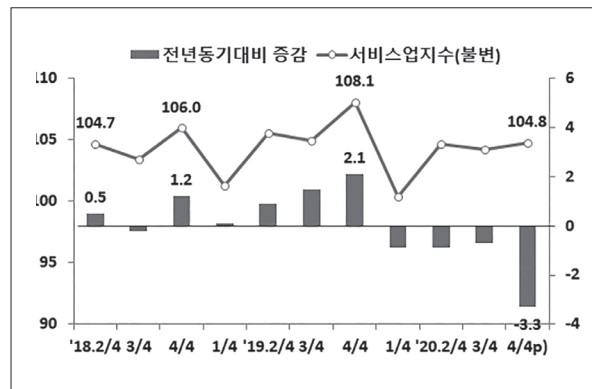
3) 현재 수준「과잉」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응답업체 구성비(%) + 100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4) ()내는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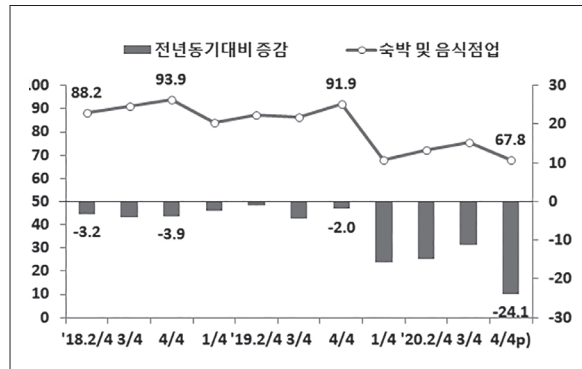
(2) 서비스업

- 2020년 4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04.8로 전년동기대비 3.3p 하락, 서비스업 중 금융 및 보험업(138.7-추정치)에서 가장 크게 상승(+18.8p)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67.8-추정치)에서 가장 크게 하락(-24.1p)

〈서비스업 생산지수(전년동기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분기)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 2월 전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불변)지수는 87.5로 전년 동월대비 34.6% 증가함.
- 가전제품, 의복, 오락·취미, 경기용품, 화장품, 신발·가방, 기타 상품 모두 증가.

구 분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원계열	93.0	86.3	89.5	82.5	88.1	85.2	82.8	79.7	79.7	86.5	85.2
전년동월(기)비	-3.6	-7.2	-5.8	-8.5	-8.1	-6.6	-4.1	-10.9	-3.4	-1.8	0.0

구 분	2019			2020												2021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p	2p
원계열	80.3	86.5	88.8	100.4	65.0	73.7	76.1	84.1	78.4	79.7	84.5	95.2	85.1	83.1	87.5	87.5	87.5
전년동월(기)비	-8.2	-2.6	-8.8	7.0	-23.2	-18.3	-2.4	-4.8	-3.4	-2.7	-0.7	-2.3	6.0	-3.9	-1.5	-12.8	34.6

(3) 건설업

① 전북지역 연도별 분석 요약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설수주액	3,006,648	2,746,359	3,358,561	1,616,643	3,418,023	2,909,215	3,673,162	4,314,399	2,616,885	3,315,188
공중 별	건축	1,730,185	1,949,981	1,514,818	950,232	2,157,153	2,114,379	1,902,504	1,802,489	2,309,107
	토목	1,276,463	796,378	1,843,743	666,411	1,260,870	794,836	1,770,658	2,511,910	1,006,081
발주 자 별	공공	1,269,293	1,071,735	854,889	598,788	1,462,663	1,026,814	1,560,865	2,266,867	1,075,547
	민간	1,688,229	1,626,911	2,464,688	903,057	1,899,537	1,805,097	2,097,077	2,016,806	2,202,182
	국내외기관	7,887	9,819	19,893	16,861	4,683	5,352	9,167	1,890	471
	민자	41,239	37,894	19,091	97,937	51,140	71,952	6,053	28,836	36,988

- 2020년 건설수주액은 3조 3152억으로 2019년에 비해 약 6,983억이 증가함.
- 공종별에서는 2019년에 비해 건축이 4,486억이 증가하였고, 토목이 2,497억이 증가함.
즉, 대규모 토목공사보다는 전체적으로 부동산개발이 건설업의 호황을 이끌어다고 할 수 있음. 공공발주가 621억이 감소하였으나, 민간발주가 약 7,280억이 증가한 것에서도 나타남.

② 분기별 분석 요약

● 전북지역 건설수주 공종별 · 발주자별 액수

(분기별, 단위: 백만원, p)추정치

구 분	2018		2019				2020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건설 수주액	995,023	1,189,929	442,525	657,767	222,679	1,328,755	760,947	443,969	446,232	1,667,327	
공종별	건축	325,131	499,439	335,696	529,242	175,590	834,851	531,098	339,955	330,287	1,105,248
	토목	669,892	690,490	106,829	128,525	47,089	493,904	229,849	104,014	115,945	562,079
발주자별	공공	651,870	806,008	209,427	157,083	98,394	697,396	242,336	123,118	132,728	578,861
	민간	326,403	371,107	233,098	499,924	120,819	630,515	517,199	289,304	309,004	1,088,466
	국내외국가관	0	728	0	581	339	0	311	54	106	0
	민자	16,750	12,086	0	179	3,127	844	1,101	31,493	4,394	0

- 2020년 4분기 전북지역 건설수주액은 1조 6,673억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약 3,385억이 증가함.
- 전년동분기 대비 공종별은 건축은 2,703억이 증가하였고, 토목은 681억이 증가함.
- 전년동분기 대비 발주자별 건설동향은 공공이 1,185억이 감소하였고, 민간은 4,579억이 증가하였음.

③ 월별 분석 요약

● 전북지역 건설수주 공종별 · 발주자별 총액

(2019-2021년 월별, 단위: 백만원, p)추정치

구 분		2019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설수주액		165,666	169,487	107,372	436,919	78,787	142,061	50,389	69,077	53,148	341,830	402,424	584,501
공종별	건축	126,455	141,956	67,285	426,123	48,164	54,955	42,927	45,594	36,945	318,586	259,826	256,439
	토목	39,211	27,531	40,087	10,796	30,623	87,106	7,462	23,483	16,203	23,244	142,598	328,062

구분		2019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발주자별	공공	39,529	155,535	14,363	23,515	34,546	99,022	7,271	25,417	15,980	40,690	216,407	440,299
	민간	126,137	13,952	93,009	412,823	44,241	42,860	41,441	42,210	37,168	300,296	186,017	144,202
	국내외국기관	0	0	0	581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179	1,677	1,450	0	844	0	0

구분		202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설수주액		263,783	445,473	51,691	100,728	90,719	252,522	110,096	169,768	166,368	434,239	449,510	783,578
전년동월대비		98,117	275,986	-55,681	-336,191	11,932	110,461	59,707	100,691	113,220	92,409	47,086	199,077
공종별	건축	198,408	306,153	26,537	60,986	81,303	197,666	77,572	129,167	123,548	380,595	210,100	514,553
	토목	65,375	139,320	25,154	39,742	9,416	54,856	32,524	40,601	42,820	53,664	239,410	269,025
발주자별	공공	72,391	138,315	31,630	44,756	14,748	63,614	35,370	44,819	52,539	67,300	207,920	303,641
	민간	191,167	306,057	19,975	55,949	44,447	188,908	73,453	121,731	113,820	366,939	241,590	479,937
	국내외국기관	225	0	86	23	31	0	0	106	0	0	0	0
	민자	0	1,101	0	0	31,493	0	1,273	3,112	9	0	0	0

구분		2021											
		01(p)	02(p)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설수주액		84,954	80,371										
전년동월대비		-178,829	-365,102										
공종별	건축	53,786	24,434										
	토목	31,168	55,937										
발주자별	공공	28,138	38,458										
	민간	56,816	41,774										
	국내외국기관	0	0										
	민자	0	169										

- 1월에 이어 2월에도 추정치이긴 하지만, 건설수주액이 대폭 감소(-3,651억)한 것으로 보임.
- 공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건축은 2,817억 감소, 토목은 833억이 감소하였음.
- 발주자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공공은 998억 감소, 민간은 2,642억이 감소하였음.

3) 수출입통계

(1) 전국통계

(단위:백만 달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수출	2019	금액	46,169	39,482	47,003	48,781	45,704	44,008	46,078	44,020	44,629	46,649	44,041	45,668	542,233	
		증감률	△6.2	△11.3	△8.4	△2.1	△9.8	△13.8	△11.1	△14.0	△11.9	△15.0	△14.5	△5.3	△10.4	
	2020	금액	43,103	40,912	46,167	36,270	34,855	39,214	42,785	39,469	47,820	44,819	45,752	51,332	512,498	
		증감률	△6.6	3.6	△1.8	△25.6	△23.7	△10.9	△7.1	△10.3	7.1	△3.9	3.9	12.4	△5.5	
	2021	금액	48,015	44,810	53,828											146,653
		증감률	11.4	9.5	16.6											12.7
수입	2019	금액	45,153	36,651	41,992	45,047	43,620	40,105	43,762	42,457	38,741	41,397	40,729	43,687	503,343	
		증감률	△1.4	△12.2	△6.5	3.1	△1.9	△10.9	△2.6	△4.3	△5.6	△14.6	△13.0	△0.8	△6.0	
	2020	금액	42,718	36,977	41,804	37,933	34,662	35,795	38,849	35,818	39,400	39,094	39,945	44,638	467,633	
		증감률	△5.4	0.9	△0.4	△15.8	△20.5	△10.7	△11.2	△15.6	1.7	△5.6	△1.9	2.2	△7.1	
	2021	금액	44,253	42,193	49,653											136,100
		증감률	3.6	14.1	18.8											12.0
합계	2019	금액	91,322	76,133	88,995	93,828	89,324	84,113	89,840	86,477	83,370	88,046	84,770	89,535	1,045,576	
	2020	금액	85,821	77,889	87,971	74,263	69,547	75,009	81,634	75,287	87,220	83,913	85,697	95,970	980,161	
	2021	금액	92,268	87,003	103,481											
무역수지	2019	금액	1,016	2,830	5,011	3,734	2,084	3,904	2,316	1,563	5,888	5,252	3,312	1,981	38,890	
	2020	금액	385	3,935	4,363	-1,662	193	3,419	3,936	3,651	8,420	5,725	5,807	6,694	44,865	
	2021	금액	3,762	2,616	4,175											10,553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관세청 무역통계 현황)

- 3월 월간 수출입 집계(추정치) 결과, 전년 동월대비 수출은 16.6%(약 76억달러) 증가한 538억달러, 수입은 18.8%(약 78억달러) 증가한 496억 달러로, 무역흑자 41억달러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임.
- 2월 기준, 주요 수출품목 현황 중 반도체(12.6%)·승용차(48.5%)·자동차부품(7.2%)·무선통신기기(23.2%), 선박(4.9%)·가전제품(4.8%) 등은 증가, 석유제품(△13.4%)은 감소함. 또한 국가별 현황은 중국(26.9%), 미국(7.9%), EU(48.2%) 등은 증가, 베트남(△0.6%), 일본(△3.7%), 중동(△23.8%) 등 감소
- 2월 기준, 주요 수입품목 현황 중 가스(31.8%)·기계류(14.9%), 승용차(7.4%)는 증가, 원유(△25.7%), 메모리 반도체(△13.0%)는 감소. 소비재는 25.6% 증가, 원자재는 6.6% 증가, 자본재는 20.6% 증가함. 국가별 현황은 중국(62.3%), 미국(5.8%), EU(7.4%), 일본(8.9%), 호주(67.5%), 베트남(12.9%) 등 증가, 중동(△20.6%)감소

- 이미,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부터 무역량이 감소하는 등 불황이 진행중이었고,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심화되었음. 2021년은 아직 초반이기는 하지만, 회복세임.

(2) 전북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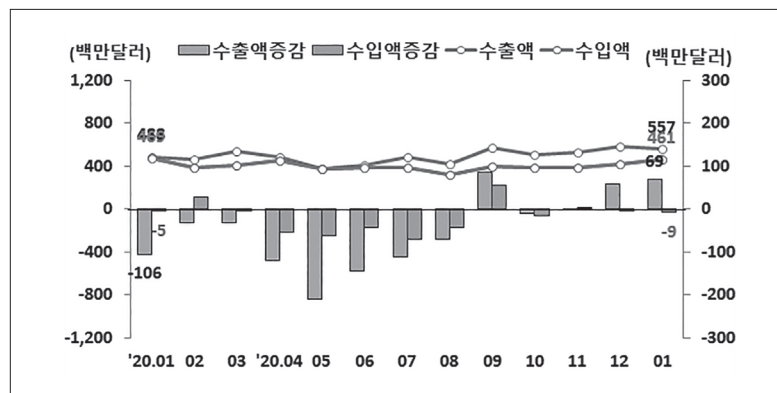
(단위:백만달러)

항 목	2018		2019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수 출	629	568	594	496	569	598	580	550	592	491	490	497	531	527
수 입	478	440	474	361	416	500	434	430	457	366	339	403	384	423
합 계	1,107	1,008	1,068	857	985	1,098	1,014	980	1,049	857	829	900	915	950
무역수지	+151	+128	+120	+135	+153	+98	+146	+120	+135	+125	+151	+94	+147	+104

항 목	2020												202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
수 출	489	465	538	479	371	406	482	421	575	508	528	584	557
전년동월대비	-105	-31	-31	-119	-209	-144	-110	-70	+85	+11	-4	+57	+69
수 입	469	390	411	448	372	386	385	322	395	383	388	419	461
전년동월대비	-5	+29	-5	-52	-62	-44	-72	-44	+56	-20	+4	-4	-9
합 계	958	855	949	927	743	792	867	743	970	891	916	1,003	1,018
전년동월대비	-110	-2	-36	-171	-271	-188	-182	-114	+141	-9	+1	+53	+60
무역수지	+20	+75	+127	+31	-1	+20	+97	+99	+180	+125	+140	+165	+60
전년동월대비	-100	-60	-26	-67	-147	-100	-38	-26	+29	+31	-7	+61	+40

- 전북 지역 수출입 현황을 보면 2020년 9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변수가 많으므로 안정적인 상태는 아님.
- 전북 역시 2018년 11,12월과 비교해 2019년 수출입현황 통계가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위기는 발생되었음.

〈수·출입액(전년동월대비)〉



5. 가계동향

1) 소비자심리지수(CCSI)

	2020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북	107.1	100.9	87.5	80.6	87.4	88.5	91.4	95.8	85.5	93.1	99.1	90.1	94.4	95.8	98.4
전국	104.2	96.9	78.4	70.8	79.7	83.7	85.9	89.7	81.4	92.9	99.0	91.2	95.4	97.4	100.5

- 2021년 3월 중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98.4로 전월보다 2.6p 상승.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00.5로 전월에 비해 3.1p 상승.

2) 소비자동향지수(CSI)

- (주요지수) 현재생활형편(87→86), 가계수입전망(95→94)은 전월보다 하락, 생활형편전망(95→96), 소비지출전망(99→103), 현재경기판단(62→73) 및 향후경기전망(92→96)은 전월보다 상승.
- (여타지수) 가계저축전망(93→93)은 전월과 동일, 주택가격전망(122→122)은 전월보다 하락, 취업기회전망(83→86), 금리수준전망(102→111), 가계부채전망(100→101), 임금수준전망(111→113)은 전월보다 상승.

연		2019		2020												2021		
월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주요 지수	현재생활형편	96	93	95	93	85	79	80	86	87	89	86	87	91	85	87	87	86
	생활형편전망	99	99	99	98	88	86	90	92	92	95	90	93	96	91	94	95	96
	가계수입전망	98	99	101	99	90	86	91	90	92	95	88	94	94	90	93	95	94
	소비지출전망	109	108	112	105	99	92	96	93	98	100	90	96	101	96	100	99	103
	현재경기판단	79	77	83	72	48	40	45	52	57	64	49	62	78	57	60	62	73
	향후경기전망	89	89	96	85	70	66	78	77	76	83	72	84	93	82	86	92	96
여타 지수	취업기회전망	92	89	94	89	72	66	75	71	73	80	68	77	87	77	79	83	86
	금리수준전망	86	90	96	93	77	74	83	79	88	88	85	90	94	93	98	102	111
	가계저축전망	98	94	94	95	91	87	89	91	91	94	90	94	95	93	93	93	93
	가계부채전망	97	98	98	98	100	99	100	98	102	97	101	98	98	100	99	100	101
	주택가격전망	106	116	108	102	104	92	93	105	112	112	108	112	118	125	124	123	122
	임금수준전망	118	119	120	117	108	103	106	106	112	113	106	110	110	111	112	111	113

6. 분석 및 시사점

1) 보고서 요약

- 전국적으로, 2월 고용현황은 1월 고용쇼크에서 반등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473천명이 감소함. 또한, 1월보다 고용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노인일자리사업(+371천명)과 농림어업(+68천명) 종사자수의 증가임. 주먹구구식 땀질 처방 대신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고용정책의 전환이 요구됨. 전년대비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음. 전북지역의 경우는 전년동월 대비 24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농림어업(+9천명)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노인일자리사업(+7천명) 종사자수의 증가임. 수치로 보면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있으나, 농도로서의 특징(농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음)과 산업의 후진성과 열악한 고용현실(중소영세 및 자영업 취업자 비율 높음), 작은 도세(인구 및 경제지분율 3~3.5% 수준)로 인해 감춰진 현상일 뿐, 위기의 질은 훨씬 심각함.
- 2020년 2월 기준 전북지역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음. 상용노동자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으며, 여전히 임시 및 일용노동자 비중이 높음. 특히, 임시직이 인턴 등의 이름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9~10개월의 품수 계약도 만연하고 있음. 또한, 36시간 이상 노동자가 감소하고, 일시휴직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근로조건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현재의 상황 및 앞으로의 전망 모두 부정적인 답변이 많음. 기업경기조사 결과 제조업과 비제조업체 모두 경기가 전월에 비해 호전되었다고 응답하는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전망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전월보다는 증가하였음. 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내수부진 등이 공통으로 지적되었음. 코로나로 인해 대외활동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가전제품 소비가 늘고, 택배 배달 등 플랫폼에 기반한 사업이 활성화되었음.
- 수출입현황에서도 보이듯이, 이미 2019년에도 전년대비 무역량이 감소하였음. 2020년 4분기부터 회복되는 추세를 보내고 있으나, 이후 코로나의 진행경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 가계동향 또한 이후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더 높음. 전월에 비해 긍정

답변이 증가하였음. 하지만, 기업경기조사와 가계동향 모두 전국 평균수치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율이 낮음. 이는 전북지역의 열악한 현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더 취약함을 반증함.

2) 이후의 대안

- 코로나의 진행경과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야 함. 코로나가 종점에 이르면,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소비재는 단시간에 공급할 수 없으므로, 준비가 필요함. 선진국과 기업들은 이를 대비해 원자재 및 설비를 확충하는 등 대비하고 있음. 전국적으로도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전북지역의 고용안정과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역 자급자족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제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재편(공해산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추진하되, 대기업 유치는 GM과 현대중공업 사례에서 보듯이 한계가 있으며, '쿠팡' 등 서비스업체는 지역에 경제적으로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각종 기업상담센터 유치 사례 참조)
-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설비(불변자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윤율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는 반면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탓에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설비비중이 낮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확대되기 어렵고, 생산성이 아니라 착취율에 의존하게 되므로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게 됨.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게 됨.
- 문재인정부의 고용정책 역시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다르지 않음. 일자리수치에만 연연함. 그러다보니, 단기간, 비정규직 일자리 중심임. 고용정책은 일자리에 사람이 부품처럼 채워지고 교체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이 안정된 노동조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중심으로 기획되어야 함.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지역에 정착하게 됨
- 전북지역의 경우, 공공부문 고용정책과 사회적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해야 함. 이를 통하여 청년층과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수용해야 함. 또한, 저임금노동자 등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 강화, 농어민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농어민 감소를 방어하며, 농작물의 다양화와 자급률을 높여야 함.

- 한국은 2019년 기준 GDP대비 무역의존도는 63.51%로 2018년(66.08%)에 비해 낮아 지긴 했지만, 여전히 G20 국가 중 독일(70.82%) 다음으로 높음. (미국과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각각 19.34%와 28.08%) 무역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내수시장 확대보다는 무역량(특히, 수출)의 감소에서 비롯되었음. 무역의존도가 높을 경우 세계경제의 ‘외풍’에 취약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됨, 그러므로, 내수시장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 참고 자료

- 2021년 2월 광주·전남·전북·제주 노동시장동향 (고용노동부, 2021. 03.25)
- 2021년 2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2021. 03. 31)
- 2021년 2월 전라북도 고용동향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2021. 03. 17)
- 2021년 2월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동향(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2021. 03. 04)
- 2021년 3월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2021 03. 26)
- 2021년 1/4분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한국은행 전북본부, 2021. 03. 30)
- 2021년 3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2021. 03. 31)
- 2021년 1월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한국은행 전북본부, 2021. 03. 22)
- 2021년 2월 수출입현황(확정치) (관세청 통관기획과, 2021. 03. 15)
- 2021년 3월 수출입현황 (관세청 통관기획과, 2021. 04. 01)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2021. 04. 01)